

BTS, 10월 부산서 10만 명 규모 콘서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콘서트를 연다.

2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15일 부산 기장군 일광 특설 무대에서 '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를 연다. 특설무대의 현장 관객 규모는 10만 명이며,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서도 약 1만 명 규모로 화상 중계 콘서트가 개최된다.

대면 및 화상 중계 콘서트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관객들은 인터파크를 통해 공연 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정확한 예약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팬 커뮤니티 위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등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도 무료로 제공된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완전체로 콘서트를 하는 것은 지난 3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댄스 온스테이지 - 서울'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이후 7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 일정이 알려지자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는 순식간에 예약이 완료됐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지난 7월 19일 열린 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서 박람회 유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연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전한 바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블랙핑크 신곡 청취 1위 국가는 '미국'

걸그룹 블랙핑크(사진)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신곡 '핑크 베놈' (Pink Venom)을 스포티파이 기준 가장 많이 들은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국 청취자 수는 266만830명으로 15.8%에 달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두고 "블랙핑크의 주류 팝 시장 비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핑크 베놈'은 지난 23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기준 571만687회 스트리밍돼 2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K팝 최초로 이 차트에서 이전 3일 연

속 정상에 섰다.

지난 2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9~21일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를 분석한 결과 '핑크 베놈'을 가장 많이 들은 국가는 미국으로, 318만4천510회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핑크 베놈'의 스포티파이 총 스트리밍 수가 2천43만4천240회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서만 약 11.9%를 들은 셈이다.

집계 기간을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으로 넓혀도 블랙핑크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은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블랙핑크 음악을 들은 청취자 수는 총 1천682만1천936명이었는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184개국서 4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반영되는 주요 플랫폼 가운데 하나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MBC '강변가요제' 21년 만에 부활



1980~1990년대 신인가수 등 용문 역할을 한 MBC '강변가요제'가 21년 만에 부활한다.

MBC는 다음 달 3일 강원도 원주시 간현유원지에서 '강변가요제 뉴챌린지'를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1978년 '강변축제'로 처음 막을 올린 '강변가요제'는 수많은 히트곡과 스타를 배출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참신한 노래와 신인 발굴이라는 본래 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의 반응도 시들해지면서 2001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지난해 11월 '강변가요제:레전드'가 열렸지만, 이때는 경쟁 없이 역대 수상자와 후배 가수들이 추억의 무대를 재현하는 콘서트로 꾸러졌다.

21년 만에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강변가요제에는 1천2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1·2·3차 예선을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위원은 김종진, 김현철, 박선주, 윤일상, 이석훈이 맡았다.

사진=MBC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